선동열(왼쪽)과 사사키의 라이벌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7월 한국서 한일 올드스타전이 추진되고 있다.

선동열 vs 사사키 추억의 라이벌전 다시 본다

김인식·장훈씨, 7월 한일 올드스타 특별경기 추진

1997년 일본 센트럴리그에서 치열한 구원왕 경쟁을 펼친 '국보' 선동열과 '대마신' 사사키 가즈히로의 맞대결이 올해 7월 한국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프로야구 올드스타들의 특별경기가 추진되고 있다.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칙위원장과 재일동포로 일본프로야구 레전드인 장훈 TBS 해설위원이 최근 한·일 양국에서 은퇴한 야구스타들의 출전 가능성을 한 명씩 확인하며 이 특별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KIA 선동열(49) 감독은 6일 광주 넥센전에 앞서 "얼마 전 김인식 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셨다. 한·일 OB들이 모여 7월 한국 올스타전 전날 특별경기를 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일본에선 장훈 선생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사사키(44)와 기요하라 가즈히로(45) 등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이지만 성사되면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넥센 김시진 감독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일 OB 올스타간 특별경기는 7월 21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2 팔도 프로야구 올스타전' 하루 전날 치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프로야구 통산 3000안타의 대기록을 갖고 있는 장훈 TBS 해설위원은 한국프로야구 출범 때 재일동포 선수들의 한국 진출을 도왔고, 1990년대 한·일 슈퍼게임 개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한일 야구교류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일본에선 은퇴한 40대 스타들, 한국에선 현역 감독 및 코치, 양준혁 등 해설가들의 참가가 논의되고 있다.

광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넥센 김병현 이번주 1군 출격 유력

삼성 이승엽, 한화 박찬호 김태균 등 해외 복귀파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한국프로야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명. 넥센 김병현(33)의 1군무대 데뷔가 눈앞이다. 이르면 8~13일 '핵잠수함'의 출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병현은 6일 광주 KIA전을 앞두고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 넥센 김시진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지금까지처럼 구체적인 1군 등판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1군 선수단과 동행하며 1군 원정구장에서 경기 직전 불펜피칭을 했기에 1군 실전등판을 앞둔 수순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이날 김병현은 총 35개의 공을 던졌다. 스플리터 등의 변화구를 집중 점검했고, 김시진 감독은 정민태 투수코치와 계속 대화하며 바로 그 옆에서 투구를 유심히 지켜봤다. 김병현은 "몸 상태가 매우 좋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며 웃었다. 정민태 코치는 "변화구가 좋았다. 잘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현의 공을 직접 받은 전병준 불펜코치는 "스플리터의 떨어지는 각이 전보다 좋았다. 힘 있게 잘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넥센은 이번 주 8~10일 목동에서 LG, 11~13일 문학에서 SK와 잇달아 3연전을 치를 예정이다.

광주 | 이경호 기자

유원상·봉중근 "고마워요 스승님"

베이스볼 브레이크 | 리즈 빠진 LG 불펜 희망 부상 비결

유원상, 한용덕 코치 슬라이더 전수
봉중근은 김기태 감독이 특별 관리
5~6일 두산전 나란히 세이브 올려

봉중근(32)과 유원상(27)이 헐거워진 LG의 뒷문에 희망을 안겼다. 레다메스 리즈의 마무리 기용이 실패로 판명 난 가운데 봉중근과 유원상은 5~6일 나란히 세이브를 올리며 잠실 라이벌 두산과의 어린이날 3연전을 위닝시리즈(2승 1패)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필승계투로서 제 역할을 120% 수행하고 있는 두 투수의 호투 비결은 뭘까.

●유원상의 변신? '한용덕표' 슬라이더 덕분

유원상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1세이브4홀드, 방어율 1.42의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06년 프로 데뷔 후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 올 시즌 환골탈태했다. 그는 "현재 직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를 상대하고 있다"며 "일단 안 아프니까 구속이 올라왔고, 그 덕분에 슬라이더의 위력도 배가됐다"고 호투 비결을 밝혔다. 특히 시속 140km까지 나오는 고속 슬라이더는 2008년 한화 한용덕 투수코치에게서 전수받은 구종이다. 유원상은 "당시 엔트리 등록은 안 됐는데, 1군에 합류해 한 달간 훈련을 하다 한 코치님께 그립을 배웠다"며 "일반 슬라이더와는 좀 다른데 커터식으로, 팔 스윙을 직구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공을 찍어 누르듯 던진다. 처음에는 각이 안 좋아서 간간히 쓰다가 올해 결정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6일 두산전에서 8회 등판해 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세이브를 신고했는데, 이날 던진 23개의 공 중 슬라이더의 비율이 57%(13개)에 달했다. 그는 "슬라이더 덕을 많이 보고 있다"며 "결과도 좋으니 야구도 재미있다. 덕아웃에서 (봉)중근이 형과 '빨리 경기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웃었다.

●김기태 감독의 '봉중근 특별관리'

LG 김기태 감독은 사실상 마무리로 낙점한 '봉중근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봉중근은 5일 5-3으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2세이브째를 챙겼다. 그러나 김 감독은 6일 "(결과를 떠나) 오늘은 등판하지 않는다. 투구수가 적으면 하루 휴식을 주겠지만 가능한 한 등판 후 이틀은 쉬게 할 것이다. 5월까지 연투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리즈가 난조를 보이며 뒷문이 열렸고, 우규민마저 2군으로 내려갔다. 봉중근 외에는 마땅한 마무리 대안이 없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수술 후라) 아직은 불안하다"며 "안정기인 6월이 되면 연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치른 경기보다 앞으로 치러야 할 경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LG 봉중근은 아직 연투 능력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지만 수년째 '마무리 기근'에 시달려온 트윈스 불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훈 선배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을 지닌 봉중근이 5일 잠실 두산전에 앞서 '갈기머리' 이상훈을 연상시키는 가발을 쓰고 나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롯데 조성환(앞)이 6일 문학 SK전 7회 수비 때 1루주자 김성현(뒤)을 2루에서 포스 아웃시킨 뒤 그라운드에 함께 쓰러져있다. 1루에 볼을 뿌려 타자주자 정근우를 아웃시켜 병살플레이를 완성한 뒤였다.
문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BIG 마우스

●음…. 오지환보다는 귀여웠죠. (LG 김기태 감독. 덕아웃에서 '동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자신도 현역시절에는 귀여운 스타일로 통했다며)

●분석 좀 그만하시라고 해야겠어요. (롯데 전준우. SK전에선 유독 잘 안 맞는 이유가 장인인 SK 김바위 전력분석원 때문 같다며)

●죄송합니다!(롯데 황재균. 롯데 주전급 선수 중 자신만 3할을 못 치고 있다며)

●베테랑 중에서도 '상 베테랑'이니까. (삼성 류중일 감독. 5일 호투한 한화 박찬호에 대한 얘기를 하다 워낙 경력이 많아 그냥 베테랑이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그럼 '하 베테랑'은 누구여. (한화 한대화 감독. 삼성 류중일 감독이 박찬호를 '베테랑 중의 상 베테랑'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중·하'로 나뉘는 것이냐며)

데일리 포커스 〈6일·상세기록 8면〉

LG 5 - 3 두산 | 승:한희 세:유원상 패:이혜천 (잠실)

이틀간 실책 5개…두산, 어린이날 시리즈 자멸

1996년부터 시작된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시리즈'는 늘 만원세례였다. 잠실 라이벌답게 명승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타격전이든, 투수전이든 엎치락뒤치락해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호수비 열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선수들은 물론 팬들의 집중력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적어도 두산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5~6일 이틀간 실책을 무려 5개나 범했다. 이전 19경기에서 실책이 7개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엄청나다. 이날도 3-3으로 맞선 7회말 1사 1·3루서 이병규의 타구를 1루수 최준석이 놓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전날 3루수 이원석의 실책으로 역전된 상황과 동일했다. 결국 집중력에 앞선 LG가 위닝시리즈를 만들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SK 5 - 3 롯데 | 승:박희수 패:최대성 (문학)

롯데 필승불펜 최대성·김사율, 홈런에 와르르

롯데는 최대성보다 김성배를 먼저 올렸다.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야 최대성을 올렸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치명적 홈런을 맞은 최대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최대성은 첫 타자인 SK 최정을 상대로 초구에 또 홈런을 맞아 3-3 동점을 허용했다. 여느 때 같으면 여기서 교체했겠지만 불펜진을 앞에서 다 썼기에 끌고갈 수밖에 없었다. 최대성은 9회에도 첫 타자 유재웅에게 안타를 맞았다. 결국 1사 2루서 롯데 양승호 감독은 마무리 김사율 카드를 빼냈다. 그러나 김사율마저 2구째에 대타 조인성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무너졌다. 롯데의 핵심 불펜 2명이 내상을 입었다. 조인성은 역대 13호·시즌 1호·개인 1호 대타 끝내기홈런을 기록했다. 문학 | 김영준 기자

한화 7 - 3 삼성 | 승:김혁민 패:배영수 (대구)

한화 캡틴 한상훈, 5타수 5안타 '신들린 맹타'

1회 무사 1루서 중월 2루타, 3회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안타, 4회 2사 만루서 1타점 우전 적시타, 6회 2사 후 좌중간 3루타, 그리고 7회 2사 만루서 다시 1타점 우전적시타. 한화 주장 한상훈이 5번의 타석에서 기록한 성적이다. 나갈 때마다 안타를 때려냈고, 그 중 2개가 적시타였다. 또 1회와 6회 안타로는 2득점을 올렸다. 한 경기 5안타는 2003년 데뷔한 한상훈에게도 첫 경험. 이전에는 2011년 9월 14일 대전 KIA전(5타수 4안타 5타점)을 비롯해 4안타를 2번 친 적 있다. 올 시즌 주장을 맡아 유니폼에 'C'자를 새긴 그는 경기 후 "그동안 내 역할을 너무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오늘을 계기로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 | 배영은 기자

KIA 10 - 8 넥센 | 승:앤서니 패:심수창 (광주)

선발왕국이 어쩌다…KIA, 17일만에 '선발승'

KIA 선발 앤서니가 7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의 선발승은 4월 19일 목동 넥센전 이후 17일 만이다. 그동안 에이스 윤석민이 3차례나 선발 등판했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KIA는 최근 3년간 선발투수의 팀이었다. 선발의 힘으로 2009년 우승했고 지난해 4강에 올랐다. 올해는 불펜도 불안하지만 윤석민과 서재응을 제외하면 필승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선발투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날 모처럼 타선이 선발타자 전원안타로 폭발한 가운데 앤서니는 시즌 2승째를 올렸지만 6경기 만의 첫 퀄리티스타트였다. 양현종과 라미레즈가 선발진의 예비전력으로 대기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그토록 기다리던 5월이 왔건만 여전히 갈 길이 먼 KIA다. 광주 | 이경호 기자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492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22	27	31	35	37	40	42

1등 총당첨금 12,465,069,000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5 명	2,493,013,80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40 명	51,937,78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434 명	1,448,753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69,327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152,057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2. 5 . 5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11년 7월부터 시행, 422회차('11년 1월 1일 추첨)부터 소급 적용)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645lotto.net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파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편집 | 김재학 기자 aiapto@donga.com 트위터@aiapto